



종군위안부 : 잘못은 우리에게도 있다

강은수

1. 왜 나는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97년 7월, 약 5년 6개월간 일한 회사를 묘한(?) 패배감과 후련함으로 그만둔 지 4개월째 접어들 때였다. 그때 나는 한국 사회(혹은 한국인)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이 땅에서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와 개인적인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에 아내를 비롯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민족주의자라고 불렀고, 나도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그런 내가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 책, 저 책을 보며 고민하던 어느 날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역사였다. 현실과 구체성을 담은 역사였다.

이념, 민족, 역사 등 거대 담론이 후퇴하고 자잘한 개인의 일상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지 모르겠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인(나 자신)을 만든 역사적 원인들을 시간을 거슬러가며 생각했다. 전에는 군부 독재와 천민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했다. 미련하게도 단 한번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흔히 하는 말로 일제 시대였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불안해졌다. 대망의 21세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무슨 고리타분한 생각인가? 내가 너무 한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곱광내 나는 생각이래도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였다. 그런데도 내가 이 사실을 주저하며 손에 짚 거머쥐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내가 받은 교육, 식민지 잔재가 남아 있는 교육 때문이었다. “해방과 함께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을 장악했던 친일파들의 조직적인 음모로 일제시대는 망각이 최선이고, 일제시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촌스럽고 모자라는 짓으로 매도되는 최면을 당한 것이다”(조정래 / 소설 아리랑의 저자).

그리고 나는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 중에서(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 한일 관계에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지금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것은 위안부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진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2. 종군 위안부

"1932년 상해사변 때 처음 실시되었던 종군위안부제도는 1938년에 들어서면서 널리 일반화되었다. 소위 황군의 자존심을 팽개치고 대량으로 위안소를 설치한 배경에는 남경 대학살 사건이 있었다. 일본군이 저지른 중국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강간사건이 반일감정으로 나타나자 일본 군부는 그 대책의 하나로 위안소 설치를 서두르게 되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아시아 전지역으로 전선이 확대됨으로써 위안부가 부족하게 되자 군 간부는 조선총독부와 함께 대대적인 종군위안부 사냥을 했다. 그 숫자는 8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제도가 민간업자가 행한 공창이라고 발뺌하다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 관여자료가 발견되자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공범인 조선총독부의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자 조선총독부는 증거인멸을 위해 그 자료를 소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1991년 여름, 한 조선인 종군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김학순)을 밝히고 일본이 저지른 죄상을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증거인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1994년 현재 각 나라에서 이름을 밝히고 나온 피해 여성의 수는 한국과 북한에서 291명(한국 160여 명, 북한 131명), 대만 50여 명, 필리핀 100여 명, 말레이시아 2명, 인도네시아 8명이다.---. 연행된 숫자가 가장 많은 조선인 여성들 가운데는 일본 패전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 대만, 중국, 태국 등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토 다카시/ 종군위안부/ 눈빛).

3. 용어 문제

9월 6일(토) 자 한겨레 신문에 위안부 할머니 기사가 2면에 걸쳐 났다. 거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 혼란스런 용어들'이라는 제목으로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옮겨 적는다.

"일본군 위안부 말고도 정신대, 여자 근로정신대, 종군 위안부 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다. 편의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이런 용어가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96년) 쿠마라스와 미 보고서에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수없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군 위안부는 군대의 성적 노예(military sexual slavery)였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국제노동기구(ILO)도 군 위안부는 강제 노동 금지 협약에 위반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정신대(挺身隊)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란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41년 무렵부터 쓰기 시작했다. 농촌 노동력을 조직하는 산업보국단, 학생의 근로보국단, 내선일체보국단 등이 모두 정신대의 일종이었다. 그러다 1943년 이후 여자의 경우 정신대는 주로 군수공장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동원한 여자 근로정신대로 통했다.

정신대를 곧 성적 노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일제가 전쟁 막바지에 근로정신대로 징집한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 현재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은 가해자쪽의 관점이며,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의 의미를 강하게 풍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안부라는 말보다는 ‘군대의 성적 노예’라는 말이 그 뜻이 명확하고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많이 쓰고 있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위안부’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귀찮더라도 속으로 ‘군대의 성적 노예’로 다시 한번 읽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읽고 있는지 보다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왜 우리는 무관심한가?

무관심! 왜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며, 침묵하는 것일까? 존 스토틀 목사님은 영국의 기독교 잡지 「제3의 길」(Third Way)의 공동 편집자인 로이 매클로리(Roy McCloughry)와의 대담(출처:도서출판 두란노에서 낸 그말씀 96년 7월호)에서 비슷한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곱씹어 생각할만한 내용이라 여기에 옮긴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화에 바쁘고 다른 일, 주로 교회 안에서 바쁩니다. 세상에서 활동하려면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협력에 대한 교리가 지나치게 강하고, 불신자들과 나란히 명예를 메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 의식이 지나치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실제적인 영적 협력 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프란시스 웨퍼의 유명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협동하여 싸우는’(cobelligerents)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이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간관이고, 둘째는 성(sex)의식이고, 셋째는 역사 혹은 역사 의식이다.

1) 인간관

“너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라도 머리를 꼳꼳이 세우기에 충분한 명예이며, 또한 위대한 황제라 하더라도 어깨를 움츠리기에 충분한 수치이니라.” - C. S. 루이스의 〈카스피안 왕자〉 중에서

지난 80년대를 한국 교회는 사회 참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따지다가 보내 버렸다. 몇몇 교회들이 활발한 사회 참여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 교회 전체로는 그 참여도가 형편 없이 부족한 편이다. 더군다나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요즘은 아예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여기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담은 글을 소개한다. 복음과 상황 97년 10월호에 실린 한철호씨 [IVF 학사회 대표간사를 지냈음] 의 글 「참을 수 없는 복음주의권의 가벼움」(문제의 본질과 상황은 무엇인가?) 을 꼭 읽기 바란다.)

한국 교회(교인)가 사회 참여에 대해 이토록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것은,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인 밑받침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교회가 세상을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 참여가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약 6년이 넘게 이 질문에 사로잡혀 살았다.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이었다. 6년간 숙성된 이 화두를 ‘아!’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풀게 된 것은---. 그런데 열쇠는 내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손안에 쥐어져 있었다. 다만 그것이 열쇠인지 모르는 나의 무지와 그것으로 현실을 꼼꼼히 들여다 보지 못한 나의 비현실적인 사고 때문이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편의 영상처럼 똑똑이 기억할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 고향(부산) 교회에서 경험한 일이다. 그 사건은 내가 1982년 고등부 1학년 때 일어났다. 그 당시 부산에서 꽤나 큰 교회였던 그 교회는 대예배를 4부로 나누어 드렸다. 점심 때가 다 되었을 때, 어디선가 남루한 옷을 입은 아저씨 몇 명이 본당 입구로 몰려왔다. 그 아저씨들 중 한 사람이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달라고 했다.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예배를 드리면 밥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밥을 달라고 했던 아저씨가 밥부터 먼저 먹게 해주면 예배를 보겠다고 했다. 장로님은 절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셨다. 밥이 먼저인지, 예배가 먼저인지를 가지고 일단의 아저씨들과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교인들이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결과는 그 아저씨들이 예배를 보지 않은 것은 물론 밥도 먹지 못하고, 화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 광경을 우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나는 장로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참 용감한 분들로 보였다. 하나님의 성전(나는 고등부 때까지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았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을 불쌍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지켜냈으니 말이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함부로 예배를 방해하며 소란을 피워라는 어느 분의 말을 통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교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나 장로님을 포함한 교인(나도 예외일 수 없다.)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로님을 포함한 교인들이(나 역시) 은연중에 그렇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갖고 있는 선민 의식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선민 의식 말이다. 이 선민 의식은 사람을 신자와 불신자, 혹은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받지 못한 자로 구분해서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대결 구도로 몰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월감과 선민 의식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높은 자리에서 불신자들(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구제 불능의 사람들)을 내려다 보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선민 의식에 사로 잡힌 바리새인을 그토록 비판하면서,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을 뺨칠 정도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3호선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독특하게(?) 전도를 하신다. 본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할 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시종일관 반말을 하시고 심할 경우 막말로 나오신다. 우월감으로 가득찬 얼굴로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왜 믿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마치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떡 한 조각 주며 생색내듯 구원을 그렇게 제시한다. 믿지 않으면 당신 손해고, 내 할 일 다했으니 나는 떳떳하다는 식이다. 심할 경우는 지옥 갈 놈, 마귀 새끼 등 별별 말이 다 동원된다. 이분만 유별나서 그럴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심리적인 면까지 깊이 들여다보면 오십보 백보다.(표현하더라도 순화된 말을 쓸 뿐이다.) 워낙 몸에 배어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말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신앙인의 이런 모습을 “구원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정말 딱 맞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에 대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이런 의식은 선택 교리와 예

정 교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며, 이 선택/예정 교리와 약 5백년 이상 한국을 지배해 온 유교의 집단주의와 가족주의의 묘한 결합의 결과라고 나는 본다. 이것은, 자랑하지 않고 은혜로써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비롯한 서신서에서 그토록 강조하지 않았던가!) 구원의 선택과 예정을 우월감과 자랑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한 한국 교회의 잘못이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의 교만 탓이다. 게다가 매사에 내편 네편이 분명해야 하는 집단주의(이 사회의 병폐인 학연, 지연 등의 집단주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가족주의(오죽하면 정치권에서도 누구 누구의 가신(家臣)이라는 말을 쓸까!)가 전혀 걸리지 않고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교회가 폐쇄적인 공동체로 전락했다. 나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도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유교의 집단/가족주의를 아주 잘 설명한 책으로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가 쓰고 사계절 출판사에서 낸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를 적극 권한다.)

이런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의식은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장애인 그리고 혼혈아를,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소위 세상 사람, 혹은 불신자들—을 배척하는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회교를 믿든, 뉴에이지 등을 믿든, 종교적 경향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든, 진화론자든, 유물론자든, 무신론자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존귀한 존재이다. 개인의 학력이나, 부, 외모, 지위, 사상 등과는 상관없이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참된 휴머니즘은 기독교 뿐이다. 진정한 인간의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증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인간이 아니라,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을 위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인간의 존귀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에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 어떤 것도 배격하고 물리쳐야 한다.

“인권의 기원은 창조다. 사람은 결코 인권을 ‘획득한’ 적이 없다. 또한 어떤 정부나 권위도 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인권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조물주의 손으로부터 생명과 함께 인권을 받았다. 인권은 우리의 창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 존 스토틀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의 존귀함을 사정없이 짓밟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더 이상 팔짱끼고서 바라 보면 안된다. 그런 일은 세상의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겸손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의 말씀(마25:31-46)이 무슨 뜻인지 진정 알 수 있을 것이다.

“---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25:40) ---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25:45) ---.”

개인 뿐만 아니라 교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관념화 된다. 즉 관념주의 기독교로 변질되는 것이다.

2) 성(sex)의식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단수) 창조 하셨으니---그들을(복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1:27,표준새번역).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기 위해서는 복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점이 의심스럽다면 몇 장 뒤에 이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이 나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창5:1-2). 이 관찰은 페미니스트 논쟁 전체에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남자 혼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 로이 클레멘츠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에서

‘낮은 목소리2’의 마지막 장면-95년도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 은 위안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말이다.

이토 다카시는 그의 책 ‘중군위안부’에 이렇게 기록했다. “특히 같은 전쟁 피해자 중에서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필자가 일본인이고 더욱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가 매우 힘들었고 몸둘 곳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재를 도중에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즉 피해 여성들의 체험을 정면으로 받아 들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민족차별, 여성차별의 기질을 엄하게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낮은 목소리1’을 결혼하기 전 아내와 함께 볼 때 내가 남자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여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 남자.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라는 사실이 그토록 수치스러운 적은 없었다.

이제부터 한국 사회-정확히 말하면 한국 남자-의 성의식에 대해 말하겠다. 사실 말하기가 가장 망설여지는 주제다. 이유는 단순히 내가 남자이기 때문이다.

먼저 밝히는 것은, -특히 남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성차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의 전환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서 있는 단계다.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것이다. 성차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의 전환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는 것은 정치적 혁명보다 수십 배 더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아직도 한국은 여성을 차별해 온 너무나 오랜 역사와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차별 공화국인 셈이다. 둘째, 정치적 혁명은 제도와 정권 등 외양적인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성차별을 깨뜨리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정을 알 것이다. 솔직히 말해 한국 남자에게는 또 한 번의 중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로 길들여진 이 완고한 마음이 뒤집어져야, 제도와 구조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 남자의 묘한 이중 기준 때문이다. 한국 남자는, 사회에서는 훌륭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완고한 성차별 주의자로 남는다. 속된 말로 내 아내와 내 딸에 대해서는 남자로 군림하고 싶은 것이다.

혹시 내가 너무 심각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다. 그것도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성된 이런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화냥년’이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서방질을 하는

여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나온다. 즉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이 생긴 이유를 안다면 얼마나 성차별이 심한 말인지 알 수 있다.

'화냥년'이라는 말은 '환향녀'(還鄉女)에서 생긴 말이다. "고국의 고향에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인 환향녀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왜놈이나 되놈들에게 전리품으로 업혀 갔던 여인으로 속전을 물거나 도망쳐 고향에 돌아온 여인을 뜻한다. 끌려가 성적 굴욕을 당했기로 더럽혀진 몸으로 돌아 오지 못하거나 돌아 왔다가 가문의 손상된 명예와 주변의 눈살 때문에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여인들이다. --- 중국의 동북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고려보라는 마을을 자주 지나게 되는데 바로 고국에 못 돌아간 환향녀나 피로인들이 어울려 살던 마을들이다."(이규태 코너. 97.9.9.조선) '환향녀'라는 말을 지금의 '화냥년'이라는 뜻으로 변질시켜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남자며, 가부장적인 사회다. 외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해 자신의 아내와 딸을 내준 남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가문의 명예를 빌미로 환향녀를 내쫓다니!

"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군이 점령했던 지역들에는 아직도 훈 할머니처럼 돌아 와야 하는데도 돌아 오지 못하고 숨어 살고 있는 핏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규태 코너. 97.9.9.조선) 왜 돌아 오시지 못했을까? 무엇이 할머니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까? 온 나라가 36년이나 일본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녀들의 더럽혀진 몸을 부둥켜 안고, 울며, 지키지 못한 우리의 무능을 용서해 달라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말이다. 지금도 자신이 위안부 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할머니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숨어 살게 만드는 이 사회가 정말 혐오스럽다!

해방 후 우리가 정말 똑똑(?)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겠는가! 동남아에 버려진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는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성차별은 영국 다이애나 비의 죽음에 대한 반응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평소에 영국인들은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에 대해 영국 전체가 오열과 통곡으로 가슴 아파했다. 영국으로 각국의 조문단이 줄을 이었고, 각국의 영국 대사관에 빈소가 차려져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유독 냉담하게 반응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한국이다. 오죽하면 영국 신문에 기사가 났을까! 기성 세대는 물론 개방적인 신세대까지 이혼녀가 바람 피우다 죽었는데 웬 호들갑이냐?고 한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히려 한 이혼녀의 죽음에 대해 세계의 반응이 너무 과민한 게 아니냐는 듯이 무관심했다. 왕실의 엄숙주의와 형식주의에 눌러 지낸 삶, 애정 없는 결혼, 이혼, 그녀를 이용한 남자와 언론 ---. 이러한 삶을 산 그녀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혼녀가 바람피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식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랑마저 막아버렸다. 성에 대해 남자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순결만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우리 사회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런 이중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최근에 '창'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매매춘의 본질을 담지 못했다. 단지 한 창녀의 인생을, 세월에 따라 변하는 사창가를 배경으로 담아 냈을 뿐이다. 성을 파는 여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또 하나의 영화에 불과한 것이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흔히 '매춘'이라고 한다. 이 말은 성을 사는 남자는 감추어 버리고, 성을 파는 여성만 강조한 성차별이다. '매매춘'이 정확한 말이다.) 성을 사는 남자를 제대로 다룬 그런 영화는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는 공권력으로 사창가를 문닫게 하거나 아예 철거를 한다. 남자들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성욕-사회적, 문화적으로 허용된 이 성욕-을 각자가 다스리지 않는 한, 걸 모습만 변할 뿐이다. 매매춘은 더욱 은밀해질 것이고, 장소는 주택가로 더욱 파고 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성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의 억압적인 성차별이 교회에서는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교회의 각종 제도와 모임에서 이런 차별을 볼 수 있다. 더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리라.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다.” 성경에는 성 문제에 대해 이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창3:16)라는 말씀이 타락으로 인해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속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구원은 타락을 이긴 것이다.

“--- 태초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였으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점과 땅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동등한 수혜자였다. 본문(창1:26-28)에는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하나님을 닮았다거나 땅에 대해 더 책임이 있다는 암시는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대해 청지기가 된 것은 태초부터 평등하게 서로 나누어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둘 다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존 스토트

3) 역사 혹은 역사 의식

“우리는 활동, 혁명, 제도, 굉장한 사건과 대학살, 생산, 문화 따위를 축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불행과 과잉이 뒤섞인 혼란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이 여전히 이 시대 속에 성육신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오직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자크 엘룰

역사는 나에게 또 하나의 ‘암기 과목’이었다. 역사의 의미를 묻기 전에, 영어 단어나 지리 과목처럼 외워야 했다. 나는 시(詩)를 공부할 때 하나의 정답만을 외워야 하듯, 역사도 정답만을 외워야 했다. 그리고 4지 선다형 시험 문제에서 하나만을 맞는 답으로 골라야 했다. 역사는 단지 나의 성적에 조금 영향을 줄 뿐,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존재로 알았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1985년), 나는 역사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살아 있는 존재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뒤늦게 내가 정답으로 알고 외웠던 사실이 실제로는 틀린 답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역사는 내게 알 수 없는 의문 부호였다.

한때 혼돈을 안겨줬던 역사는, 이제 내게 ‘의미’를 준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역사에 빛을 주고 의미를 준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 오셨다. 물고기는 물에 살듯, 나는 역사 속에 살아야 한다.

자잘한 개인의 일상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나는 역사를 이야기 한다.

우리는 모두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외웠다. 거짓을 사실로, 사실을 거짓으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외웠던 그 역사를 망각했다. 게다가 몸으로 살아온 역사마저 망각했다.

그렇기에 몇 년 전, 한 신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회고전을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동조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것이다. 아니 잊어버리도록 이 사회의 누군가가 계속 조작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의회정치 행로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민족양심세력보다는 친일세력과 손잡고 정권을 잡은 그는 1948년 제헌의회에서 만든 의원내각제 중심의 헌법초안을

‘대통령제를 가미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을 말지 않겠다’고 고집해 바뀌버렸다. 이후 48년 9월 친일 파들을 구속, 재판,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민족행위자특별위원회의(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했으나, 이승만 정권이 불체포 특권의 반민특위 관련 의원 6명을 공산당이라는 혐의로 체포해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50년 2월에는 반민특위를 해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52년에는 간접선거에 의한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자 전시중인 데도 계엄령을 선포해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원 47명을 구속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압적으로 의사당 안에 들여보내 개헌안을 통과시킨 발췌 개헌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했다. 이후 54년에는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를 뼈대로 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의회정치에 상처를 입혔다. 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자 이승만-이기붕 체제구축과 야당탄압을 노린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등의 법안을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바깥으로 몰아낸 뒤 통과시키기도 했다(한겨레.97.9.24.).

망명!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다. 그는 지난 18년(1961-79)간 우리를 지배했다. 나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직’ 박정희 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 회고전을 했던 그 신문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리워한다. “형제들을 죽이고 쿠데타로 집권했을망정 불세출의 통치력으로 조선의 왕권을 확립한 태종 이방원. 그 사나이다운 매력을 실감나게 그려내는 텔레비전 드라마 <용의 눈물>만큼이나 감동적인 ‘인간 박정희 드라마’가 최근 한 신문에서 시작했다. 1979년 10월 26일 운명의 그날, 구중심처 청와대에서 그가 한말 한마디, 몸짓과 상념까지 방금 눈으로 본 듯이 그려내는 그 유려한 필치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몇 달 전부터 그에 대한 ‘실록’을 연재하고 있는 다른 신문과 함께 국내 최고의 발행 부수를 다투는 두 신문에서 동시에 ‘박정희’의 인간성과 치적이 수백만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97.10.24.).

5. 다음은 누구일까?

지난 100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였지만 안타깝게도 냉엄한 평가가 없었다. 한번도 정확한 상과 벌이 없었다. 친일파는 벌을 받고 독립운동가는 상을 받고, 독재자와 그 추종 세력은 벌을 받고 이에 맞서 싸운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바른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반대로 되었다. 옳고 바른 일을 해도 상을 주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주지 않는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주었는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능히 알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 조세희씨는 ‘당대비평’ 창간호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20세기를 우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보냈다. 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이 헤어졌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죽었다. 선은 악에 젼다. 독재와 전제를 포함한 지난 백 년은 악인들의 세기 였다. 이렇게 무지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고 이타적이지 못한 자들이 마음놓고 무리져 번영을 누렸던 적은 역사에 없었다. 다음 백 년의 시작, 21세기의 좋은 출발을 위해서라도 지난 긴 세월의 적들과 우리는 그만 헤어져야 한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또한 한국 기독교의 역사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며, 억눌린 자를 보호하시고,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동일한 성품을 가졌는가?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외친다. “그리스도의 고난만 묵상하고 닥하우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아우슈비츠는 무엇인가?

6. 기도가 먼저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과 논의를 마칠 때 항상 기도로 마무리한다. 특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사회참여-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막상 '자!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허탈해지는 것은 비단 나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심각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기도를 하면서 벗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제 기도했으니 내 할일 다했다는 해방감(?)을 누리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인 문제는 기도를 하고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는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100%로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올 해 9월부터 수요일 모임(5년 넘게 위안부 할머니와 이 일에 참여하는 단체와 소수의 시민들이 모여, 매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일본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한다.)에 나갔다. 처음에는 분노와 눈물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엇인가에 강하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매번 느꼈다. 그게 너무 괴로워서 10월8일(6번째)은 가지 않고 그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 실체는 미움, 폭력, 절망, 어두움이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너무 미워서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과, 일본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절망과, 일본의 강력한 군국주의 우상이 주는 숨막히는 어두움이었다. 내가 도대체 몇 번을 갔다고 절망하는 것일까! 할머니들은 5년-일본과 한국 다 변하지 않은 그 세월-동안 계속 데모를 하시는데--.

나는 자크 엘룰의 지적처럼 '행동 지상주의'에 빠졌다. "일단 행동에 동의한 뒤, 그 위에 기도를 더한다. 그러나 순서는 거꾸로이다." 기도가 먼저다. "먼저 기도가 있고, 그 다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있는 것이다. 즉 그 기도의 작용으로써 나오는 행동이다. -- 기도에는 행동이 뒤따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기도이다. -- 기도는 행동이 행동 지상주의가 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 속에서 당황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기도는 우리의 행동이 실패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며, 성공을 추구하여 더욱 더 많은 행동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의 행동벽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기도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내 유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나에게 언제나 행동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의 행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 행동을 감수해 주셔야 한다는 것 등이다. -- 폭력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폭력의 세계,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로 폭력이 지배하는 이 사회, 실제적인 것과 폭력을 추구하는 이념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폭력은 세상의 '기본 원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반대로, 기도는 훨씬 더 급진적인 파괴이며 훨씬 근본적인 저항이다. 세상은 이 기도의 결의, 기도의 전투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행동에 있어서든 생활 양식에 있어서든 모든 급진주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뛰어난 기도의 파괴력 뿐이다."(기도와 현대인, 두레시대) 정말 스피지가 물을 흡수하듯 나는 자크 엘룰의 말을 받아들였다. "온전히 기도하는 삶에는 사회 참여가

요구된다.”

7. 글을 마치며

이제, 나는 진정 일본을 사랑한다. 이 사랑은 기도의 용광로에서 일본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싸운 결과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된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 위안부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며, 행동하는 동안 나는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되었다. 한국인들이 일본이라면 이성을 잃어 버리고 미워하는 그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에도 의미를 주시듯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도 의미를 주신다. 한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일본도 자신의 굴레(특히 군국주의)를 벗고 2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